3강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1교시)

◆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 학습목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명사적 사유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에 그리스 북부에서 태어났다. 18살에 그는 공부하게 위하여 아테네로 갔다. 거기서 18년간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였다. 플라톤이 죽자 그는 소아시아로 여행을 떠나 5년 동안 철학과 생물학을 공부했다. 그리고는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온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됐다.

▲ 소요학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죽은 후 아테네로 돌아와 숲속의 거닐면서 철학을 토론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를 "소요학파"라고 부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최초의 비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관심이 자연의 구체적인 과정들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추상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살아 움직이는 자연 속에 뿌리 박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플라톤에게 있어 참된 실재는 사물들과 분리되어 존재한다.
플라톤의 사상이 초시간적이며 존재의 정적인 측면(기하학, 수학)에 보다 밀착되어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생성하고 변화하는 자연의 동적인 영역(생물학)에 더 밀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논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존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었다. 생물학적 입장에서 볼 때 존재하는 것은 어떤 동태적 과정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항상 "어떤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움직이면서 존재하는 것들. 즉 동사는 명사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모든 범주들 성질, 관계, 양태, 장소등과 같은 범주들은 이에 상응하는 주어를 전제한다.
이 모든 술어들에 상응하는 주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ousia)" 라고 불렀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는 사물 자체의 속성을 기반으로 한 논리이다. 어떤 명사 혹은 실체가 가진 속성은 포함관계에 입각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동어반복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인 주어를 중요시하고, 그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 또는 우연적인 속성을 부차적으로 취급했다. 명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실재이며 술어적인 것은, 주어 속에 필연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부가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어적 논리는 후에 헤겔에 의해 술어적 논리와 대비가 된다.

www.artnstudy.com

▲ 잠재태와 현실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변화란, 형상 없는 질료나 질료 없는 형상으로부터 결코 발생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언제나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 도토리의 목적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소년의 목적은 어른이 되는 것이듯, 변화는 사물 자체 안에 그러한 목적을, 잠재적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태와 현실태 개념을 도입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잠재태가 현실태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잠재태가 현실태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잠재태가 현실태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태가 이미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알이 있으려면 닭이 있어야 하고, 닭은 다시 알을 낳고, 알은 다시 닭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맞물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적으로 모든 변화의 전제조건으로서 현실태, 즉 실체가 선행되어 있다고 전제하였다.

* 참고서적: 『모든 것의 역사』 (켄 윌버/ 조효남/ 대원출판)
* 참고서적: 『감각과 영혼의 만남』 (켄 윌버/ 조효남/ 범양사)

▲ 육체와 영혼

육체가 없다면 영혼이 존재할 수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다. 영혼이란 육체를 결정해 주는 형상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한 플라톤의 주장과 날카롭게 대립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나의 실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과 육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육체가 죽으면 그것을 조직화하는 원리인 영혼도 함께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학

헤겔은 "새가 날아간다."고 할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새라는 명사 혹은 주어의 속성에 이미 "날아간다."는 속성이 있다고 파악하기 보다는, "날아간다."라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새"라고 하는 우연적인 속성에 이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헤겔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명사 중심적이 아니라 동사중심적인 것이다. 따라서 실재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명사, 명사적 사유이고 헤겔에게 있어 동사이며 동사적 사유이다.

www.artnstudy.com

(2교시)

◆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 학습목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있어서 덕(탁월성)의 개념을 이해한다.

▲ 덕 혹은 탁월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이나 사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덕 혹은 탁월성이라고 보고 개개인의 본성에 따른 삶,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삶이 윤리적 삶의 토대라고 보았다. 좋은 사람 혹은 선한 삶이란, 바로 자신의 인간의 품성 혹은 본성을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보이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고를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개인주의는, 고대 그리스 사람에게는 찾기 힘든 것이다. 즉 개인과 국가 간의 엄밀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를 자연의 질서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 참고서적: 『니코마코스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김재홍/ 이제이북스)

▲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
영혼은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인간은 비이성적인 부분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도덕적인 선에 이를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다. 합리적 이성의 보편적인 법칙은 정의로운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노예나 예술가들은 덕의 실천 혹은 윤리의 실천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시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 지적 탁월성과 성격적 탁월성
지적 탁월성의 기원은 가르침이고 성격적 탁월성은 습관의 결과다. 성격적 탁월성은 그와 유사한 활동으로부터 생긴다. 그러한 활동의 습관에서 큰 차이가 나온다. 체력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운동을 견딤으로서 생겨나듯이, 탁월성도 극단의 중간을 취하려는 습관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ex,정의, 용기, 절제) 탁월성은 감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며, 품성상태이다. 탁월성은 그 무엇을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그것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한다.

www.artnstudy.com

▲ **중용표***

중용은 단지 산술적 비례에 의한 중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간이 중용이다. 탁월성은 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련감정-행위	지나침	중용	모자람
감정(pathos)영역	두려움과 대담함	무모	용기	비겁
	즐거움과 고통	무절제	절제	낭비
	노여움	성마름	온화	화낼 줄 모름
외적인 좋음	재물(보통)	낭비	자유인다움	인색
	재물(큰 규모)	품위 음	통이 큼	좀스러움
	명예(보통)	명예욕	[이름 없음]	명예에 대한 무관심
	명예(큰 규모)	허영심	포부의 큼	포부의 작음(소심함
사회적 삶	진실	허풍	진실성	자기 비하
	즐거움(놀이)	[저급]익살	재치	촌스러움
	즐거움(일상)	아첨	친애	뿌루퉁함
탁월성은 아닌 감정	부끄러움	숫기 없음	부끄러워 할 줄 앎	파렴치
	이웃의 상황	시샘	의분	심술

www.artnstudy.com

(3교시)

◆ 정의의 개념

※ 학습목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개념을 오늘날에 비추어 이해한다.

▲ 전체적인 부정의와 부분적인 부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핵심을 적당한 정도(정도의 적당함)라고 말한다. 그에게 정의란 완전한 탁월성이다.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전체적인 부정의로, 사소하게 돈이나 이익 때문에 저지른 잘못일 경우 부분적인 부정의로 구분한다.

* 참고서적: 『정의론』 (존 롤스/ 황경식/ 이학사)

▲ 정의의 분류
1) 분배적 정의(비례적 정의):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에서의 정의 ex) 솔로몬의 선택
2) 시정적 정의: 이익과 손해 사이의 중간입장을 취하는 정의
3) 정치적 정의: 권리의 동등성, 자연적인 것과 법적인 것(관습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 범죄행위의 분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윤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한다.

1) 잘못: 무지에서 행한 것
2) 불운: 피해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경우
3) 부정의한 행동: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생긴 일 ex) 분노로 인한 범죄

▲ 근원적인 공정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에게 얼마든지 유리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을 취할 수 있는 태도를, 근원적인 공정성이라고 하고 이를 최고의 정의로 보았다.

▲ 정의 개념의 문제점들
문화와 국가를 떠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에는 의심의 여지가 이다. 사람마다 기호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에는 어쩔 수 없이 강자와 약자가 있다. 따라서 그 사회의 정의 또한 강자의 정의는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www.artnstudy.com